

왜 韓國에는 『파우스트』와 같은 傳說이 없는가?

池明烈*

〈파우스트 박사〉는 대략 1480년에서 1540년 사이에¹⁾ 실제로 생존한 인물로 전해오고 있기는 하나 그의 출생지는 확정적으로 고정된 바가 없다.²⁾ 따라서 그를 역사상 실존인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논구의 여지가 남아있고, 그는 여전히 신분이 분명치 않은 전설적 인물이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온갖 편력생활을 하는 중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였던 고로 사이비 학자로 간주되어, 마술사 또는 마귀의 일당이라는 등의 여러 가지 풍설이 그를 뒤따르기도 했다. 그에 관한 실제적인 전기와 가공적인 전설이 혼합되어 작가미상의 『민중본 파우스트 박사 Volksbuch von Doktor Faust』³⁾가 1587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었고, 그후 增補改訂版들이 속출하였다. 파우스트 박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원을 탐구하려 한다. 마귀 메피스토가 그를 대·소 우주의 비밀세계로 유인하기도 하고, 황제와 교황 앞으로 안내하면서 그에게 많은 기적을 행사할 초자연적 힘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는 사탄에게 영혼을 판 죄의 대가로 처참한 죽음을 당한다.

본시 이 민중본을 발간한 목적은 민중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세속적인 식이나 理性은 사탄의 소행이라는 점을 훈계하려는 데 있었다. 감히 신의

* 서울대 독문과 명예교수. 본 논문은 1993년 11월 18일 독일학 연구소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 원고임.

1) 참고로 마르틴 루터의 생존시기는 1483 - 1546.

2) 파우스트의 출생지는 Knittligen bei Maulbronn이라는 설이 유력하나, 이 설도 많다.

3) Johann Spies: Historia von D. Johann Faust, Frankfurt am Main, 1587.

영역까지도 침범하려는 오만과 악마적 불손에 대한 경고수단으로 쓰여진 것이다. 즉 파우스트가 의도하고 생각한 일은 사랑해서는 안되는 것에 대한 사랑이었으며, 밤낮으로 독수리의 날개에 몸을 싣고 그것을 추구했던 것이다.

마귀와의 계약을 모티브로 한 후속 작품으로는 우선 독일고전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들 수 있고, 독일 낭만주의 문학의 주옥편으로 평가되고 있는 샤미소(Adalbert Chamisso 1781 - 1838)의 그림자를 마귀에 판 『페터 슈레밀의 신기한 이야기(Peter Schlemihls wundersame Geschichte, 1814)』가 있으며 그 밖에 독일 국내외의 대·소 작가들에 의한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 괴테작 『파우스트』의 주인공은 민중본에서나 마찬가지로 무한한 인식욕의 충동에서 대·소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여 인간이라는 왜소한 존재의 한계를 초월하려 한다. 그는 마귀의 힘에 의존해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메피스토와 계약을 맺고 초자연적 세계로의 행각을 시작한다. 이때 그의 행동 좌우명은 <인간은 노력하는 한 마음의 동요를 금치못한다>는 것이다.⁴⁾

괴테 이후 <파우스트적인 존재>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여 <항상 분투 노력하는 자라면, 우리가 그를 구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민중본에서는 거대한 것과 마귀적인 것의 존재를 부정하고 배제하려 하였음에 반하여, 괴테의 드라마에서는 그런 것들의 존재를 無妨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 결과로 파우스트의 운명은 민중본의 경우와 괴테의 드라마에 있어서와 서로 다르게 끝나고 있다. 현재 우리는 민중본을 통해서가 아니라, 괴테의 작품을 통해서 <파우스트적 人間像>을 이해하고 있으며, <파우스트>를 목적달성을 위하여 초인간적인 노력을 계속하는 巨人主義의 표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중본 『파우스트』의 문학적 의의는 비단 주인공의 인간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서 중요한 문제성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어느 시대가 이 작품을 산출하였으며, 그것은 어느 시대사조를 대

4) Goethe: Faust, Hamburger Ausgabe Bd.3: S.18, Prolog im Himmel, Es irrt der Mensch, solange er strebt. (人在努力時 總不勉錯妄)

변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파우스트』가 출간된 16세기는 독일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다. 그 이유는 중세에서 근세로의 전환점을 이루는 독일 르네상스시대가 바로 16세기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중세 봉건사회가 공고하였기 때문에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좀 늦게 16세기에 르네상스가 시작했다. 그것도 미술이나 문예면에서가 아니라 주로 학문과 사상분야에서 人文主義 Humanismus로 발전하였다. 이 점이 독일 르네상스의 특징인데, 그 이유는 독일의 문화전통이 비교적 짧아서 이탈리아의 경우와 같은 재발견하여 재생시킬만한 옛 고유의 민족문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일 고전연구자들은 고대 회람 로마의 고전 속에서 개성을 존중하고 현세를 긍정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발견하고, 〈기독교에 의해 교화되기 이전의 인간상〉의 原形을 탐구하였다. 그리하여 독일 인문주의는 새로 발견한 인간성을 재생하고자 하는 〈人間復興〉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인문주의는 모든 종래의 전통적인 권위, 특히 교회의 권위를 배척하고 개인의 해방과 자립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였다. 또한 종래의 금욕적 현세도피적 생활태도를 지양하고 개인의 능력을 자유롭게 신장하여 현세의 탐구를 지향하였다. 또한 여러가지 현실적 학문을 개발함으로써 인간의 成就能力과 形成力을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 이바지하려는 새로운 인생관과 세계관을 정립하였다. 인문주의는 중세적 가톨릭교의 여러가지 제약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근세 산업화시대에 대비한 사상적 혁신이다. 한편 당대인은 인문주의에 의해서 새로운 생활감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인간은 가톨릭교의 신성한 위계질서 속에서 안주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현세의 존재와 영원한 신의 세계사이에서 자신의 존재위치를 확립하고 진로를 찾아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면적 갈등을 최초로 취급한 『민중본 파우스트 박사』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정열적으로 현세를 구명하고 인식을 추구함으로써 천상의 행복을 포기하는 인간의 비극이다. 이 민중본은 바로 당대인의 〈파우스트적 욕구〉의 문학적 표출이다. 그리고 〈파우스트〉는 당대인의 마음 속에 무한한 판타지를 환기시켰고, 의식의 개조에 영향을 끼쳤다. 지금까지 인간의 인식욕구와 판타지를 제약해온 것은 바로 『聖書』였으니, 『파우스트 박사』야말로 성서에 정면으로 대립한 민중본이라 하겠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고, 찬란한 전통문화를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인문주의〉와 같은 시대사조, 그 문학적 표출, 그리고 〈파우스트〉와 같은 인간상이 있었음직하다는 희망을 갖고 그런 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本論의 動機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나는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論究 方向을 바꾸어 한국에서 파우스트 전설이 성립하지 못한 이유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왜 한국에는 파우스트와 같은 전설이 없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나는 한국인의 생활감정 또는 인생관 형성에 영향을 끼친 기본적 사상들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와 같은 사상들속에 한국문화사에 〈파우스트〉와 같은 전설이 없는 근원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사상을 서술한다 해도,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학문적 농도가 짙은 것은 못될 것이다. 또한 그 사상들에 대한 形而上學的 또는 存在論的 비판을 시도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화사적인 概觀을 해보고자 하는 것 뿐이다.

한국의 종교사상 대표적 종교는 샤머니즘, 불교, 유교이다.⁵⁾ 한국사의 시초이래 샤머니즘이라 불리고 있는 민간신앙, 또는 민중의 미신이 한국인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정착하였다. 그 후 불교가 전래하여 종교의 주축을 이루다가 불교의 타락 현상이 나타나자 유교가 성행하였다.

샤머니즘, 불교, 유교는 이와 같이 차례로 한국의 문화사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신종교가 구종교를 완전히 추방하거나 소멸시키는 일은 한번도 없었다. 유럽역사에서는 7세기경 기독교가 異教를 제압하였을 때 宗教革命이 있었으나, 그와같은 변혁은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상기한 3대 종교는 차례로 등장하였으나 한국땅에서 공존하여 왔다. 즉 相互간에 容認하고 작용해 왔다. 그런 까닭에 이 3대 종교가 합쳐서 한국적인 생활 감정, 한국인의 인생관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와같이 외관상 전혀 다른 性向의 3대 신앙이 마찰없이 공존하고 있는

5) 금장태는 『한국인의 종교』 72면에서 “조선사회는 유교를 사회적인 정통이념이자 국가종교로 정립시켰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필자도 유교는 단순한 道德論이 아니라 강력한 종교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예시를 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한국문화에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특징이다. 현대 한국의 가정에서는 조부는 유교식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조모는 샤머니즘을 신봉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절에 가서 자녀의 장래를 위해 불공한다. 한편 아이들은 기독교 교회에 간다. 이와같은 종교생활의 다양성은 한국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가족은 신앙문제로 인해서 논쟁하거나, 또는 불화가 생기는 일이 없이 원만하게 생활한다. 家長은 묵묵히 가족들의 종교생활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줄 뿐이다.⁶⁾

가족간의 사정이나 마찬가지로, 국가적 공존이라는 더 큰 영역 즉 정치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신앙문제로 해서 국가를 비판하거나 자기 민족을 버리는 한국인은 없다. 한국은 국내에서나, 인접국과의 사이에서나 종교전쟁을 경험한 일은 없었다. 한국적 관용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법제화된 현대 한국의 국경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음력과 양력 두 개의 日歷에 따라 국경일이 설정되어 있다. 정초도 행정적인 양력 정초와, 민속적인 음력 설로 두 번이나 있다. 음력정초는 조상에 대한 세배로 시작한다. 추수감사절이라 할 음력 8월 15일 추석도 우선 조상에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민족의 기원설화인 곰 토텐신앙에 따라 설정된 개천절(10월 3일)은 양력으로 축하한다. 석가 탄생일(음력 4월 8일)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양력 12월 25일)을 공히 국경일로 축하하는 실례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도문 일이다. 조상숭배는 한국에 있어서 다른 종교생활과 병행한다. 그리고 불교도와 기독교도가 한국에서 마찰없이 공생한다.⁷⁾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인의 종교적 관용성은 고금을 통해서 변함이 없음을 인지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인이 모든 종교를 동일하게 수용하여 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즉 한국에서는 어느 종교이든간에 행복을 약속하는 것으로 수용되었다. 어느 신앙이든 행복을 약속하기만 하면 그 종교는 한국에서 수용되었고 성공했다. 지금도 그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샤머니즘이든 불교 또는 유교이든 간에, 모두가 한국인에게는 행복을 약속하고, 행복을 부여하는 것이다. 행복의 추구라는 점에서 상기한 종교들은

6) 윤이훈 外 共著: 『한국인의 종교』, 정음사 1989, 11면.

7) 上同 5면.

동질성을 구비하고 있다. 모든 종교는 각기 교리만 다를 뿐 한국인에게는 祈禱宗教이다. 그런 의미에서 샤머니즘, 불교, 유교는 한국인의 의식에 수 세기에 걸쳐 깊은 영향을 끼쳐 왔고, 의식형성에 기여하였으며, 그 의식에 구체적인 형상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姿勢와, 한국인 의식의 表面的 發現形態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 특히 부정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 本論의 課題이다.

행복을 추구하고 유지하려는 자세는 한국인의 의식 속에 깊이 고정되어 있다 해도, 그것은 여러가지 학문분야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학, 종교학, 민속학, 인간학 또는 한국의 문화사 등에 있어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독일문학자에게는 이와 같은 유관 학문분야의 전문지식이 빈약하다. 필자도 그와같은 독일문학 연구자의 한 사람이다. 이 테마를 논술함에 있어서 주로 일반적인 지식과 나 자신의 경험에 의거하는 수밖에 없지만, 상기한 학문분야의 관련문헌을 참고삼아 논술내용의 충실을 기하고자 한다.

I. 샤머니즘

고대한국인의 숭배대상은 3神, 즉 天神, 地神, 祖上神이다. 천신은 태양을 비롯한 星辰이고, 지신은 名山, 大川, 巨岩石, 巨木 등이다. <곰>은 수호신 또는 조상신으로 숭배되었고, 이 토템(Totem)사상에서 한국민족신화가 시작한다. 고대한국인은 위대한 자연에 대한 경외감에서 제단을 설치하고 제관의 주도하에 그 자연을 경배하는 제사를 지냈다. 즉 그 힘에 의존하여 개인, 가족, 동민, 부족의 행복을 얻고 재앙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종교적 기복행위를 하였던 것인데, 점차 의식화하여 부분적으로는 오늘에 이른 것도 있다. 제사, 기복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생겼을 때 고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즉 귀신이 있어서 그것이 인간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인간과 귀신과의 사이에 관계가 성립하였고, 제관대신 무녀가 중개자 역할을 함으로써 샤머니즘이 발달하였다.

샤머니즘적 의식은 주로 귀신에게 기복하는 것이다. 여기서 귀신이란 함은 魔鬼(Teufel)라기보다는 雜鬼(Dämon)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마귀>는 모두가 <나쁜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교화된 이후 기독교적 絶對善神의 반대개념으로서 <마귀>는 다만 악한 존재로 그 개념이 단일화·고정화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마귀>는 全能한 신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존재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가 말하는 귀신은 下位魔鬼 정도라고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한국인은 <잡귀>를 <항상 나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잡귀란 경우에 따라서는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니까 잡귀는 인간에게 해로울 수도 있고 또한 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 한국인의 잡귀 존재개념이다. 그런 까닭에 인간과 잡귀 사이의 관계는 <對決>과 <妥協 去來>의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 양자간의 관계를 무너가 조정한다. 잡귀의 악행으로 가족 한 사람이 병들면 무너가 잡귀를 쫓아내는 의식을 행하는데, 잡귀는 인간보다 강력하며 제압이 불가능하므로 결국은 잡귀와의 화해가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인간과 잡귀 사이에 타협과 거래가 시작한다. 인간이 잡귀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잡귀의 성격도 가변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잡귀에게 뇌물을 주어 그를 달래서 악귀가 아니라 선귀가 되도록 타협함으로써 양자간에는 좋은 관계가 성립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은 잡귀의 힘을 이용하여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점은 가족적 이라고나 할 수 있을런지? 이런 점이 동서양의 <마귀> 개념과 인간 對 마귀관계의 차이점이라 하겠다.

독일의 민중본 『파우스트』에서는 주인공 파우스트가 직접 마귀 메피스토(Mephistopheles)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자가 공히 계약이행의무가 있고, 봉사에 대한 報償要求權利가 있게 된다. 즉 法的인 契約關係가 성립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적 샤머니즘의 기복행위는 인간이 무너를 통해서 물질을 제공한 간접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만 그 물질에 대한 보답을 요구할 또는 기대할 권리만 있을 뿐 그밖의 책임은 없다. 참으로 편리하고 생명의 위험성이 없는 계약이다. 특히 가족의 한 사람을 위한 기복일 경우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요행히 결과가 좋으면 <효험>이 있었다 하고, 그렇지 못하면 <致誠>이 부족했다든가, <運>이라고 간단히 처리해버린다. 이와 같은 사고는 불교나 유교의 기복행위에 서도 공통적이라는 것을 다음 항목에서 논술하겠다.

상술한 바와 같은 샤머니즘의 기복행위는 功利主義이어서 당장에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별로 책임부담이 없기 때문에 서민 대중

사이에 널리 확산하여 여러가지 민간신앙과 더불어 오랜 세월을 거쳐 계승하여 오는 중에 한국인 사이에 생활화하여 관습으로 되어버렸다. 자연의 위협, 질병, 기근, 관권 등에 시달리며 살아온 미약한 인간에게는 의지할 힘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불교, 유교, 또는 근래에 와서 기독교 등 외래 종교는 주로 상류층에 적합한 高等宗教이었던 고로 옛 서민층의 의식차원에 맞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는 의지할 힘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민간신앙은 고차원의 윤리성이나 내세의 救靈을 위한 修道같은 것은 상관하지 않는 생활종교이어서 서민적 의식구조에 적합한 종교적 기능을 갖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즉 신비력에 의존하여 병을 고치고, 행운을 얻어 재난을 면하고,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신념을 주고, 삶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생활의 희망을 주는 중대한 종교적 기능을 해왔다. 여기에 민간신앙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게 된 근원이 있는 것이다. 민간신앙은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고 보겠는데,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겠다: 자연에 대한 지나친 敬畏心에서 그 탐구와 이용을 등한시하게 된 습성. 고난을 극복하고 인생을 개척하려는 진취적 노력의 부족. 실패와 불행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패배주의. 타력에 의존하여 삶의 문제를 便法으로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습성 등이다.⁸⁾ 비근한 예로서 오늘날 빈번히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受賂事件은 잡귀와의 협상습성의 연장으로 보인다.

II. 佛敎

불교는 372년⁹⁾ 처음으로 한국에 전래된 이후 1600년 동안 한국인의 생활감정과 문화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한국불교는 본시 大乘佛敎(Mahayana)이다. 그러므로 당초에는 명상에 의한 수도, 인간의 전반적인 구제를 목표로 한 교법을 주장하고 그것이 涅槃(Nirvana)으로의 대도라 하였다. 그러나 불경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가 절대 다수였던 과거시대에는 불교는 대중종교가 아니라 유식층의 貴族宗教였다. 따라서 일반대중 사이

8) 『한국인의 종교』, 185 - 186면.

9) 韓甲振 著: 『알기쉬운 佛敎史』, 韓振 出版社 1986, 197면.

에서는 전통적인 민간신앙이 무속과 더불어 성행함으로써 종교적 이원성이 지속하였다. 불교는 주로 王都圈내의 상류층에 수용되었던 고로 왕실의 지원을 받아 번성하기 시작하여 왕도내에 사찰이 건립되고 불교문화가 발달하였던 것이다. 그결과 당초에는 간소하였던 종교형식이 점차 호화사치스럽게 되었고, 명상과 수도를 통해 安心立命하려는 來世敎가 변질하여 현세의 행복을 기원하는 現世佛敎가 되었고, 나아가 초국가적인 종교가 아니라 왕실과 국가의 안녕과 태평을 위한 護國佛敎로서 수용되었다. 그러다가 高麗朝(918 - 1392)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國敎로 결정되어 국가적 지원하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승려는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얻게 되어 고위직 자문관 자격으로 국정에 참여하기에 이르자 권력을 얻은 승려사회는 점차 부패하여 수도보다는 더욱 기복행위에 열중하고 신도들에게 금품불공을 유도함으로써 속화 타락하였다.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유학자들이 불교를 멸시하고 정책적으로 왕도내에서의 활동을 제한하였음으로 점차 승려들은 지방 산중으로 도피하였다. 그후 거듭한 戰火로 도성내 대사찰이 소실되어도 복구하지 않았음으로 사찰은 주로 산중에 건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런 점이 기독교, 회교, 일본의 불교가 시중에서 민중을 위한 포교활동을 전개하며 현실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한국불교의 은둔적 포교활동의 차이점이라 하겠다. 이로 인하여 후일 한국기독교가 오늘과 같이 시중에서 급속히 발전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해둘 것은 조선조의 排佛政策은 종교사상 그 자체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승려들의 생활을 위시한 불교의 현실적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정책의 결과로 한국불교의 위상이 결정되었다. 즉 사찰은 산중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 유지 존속을 위하여 승려들은 영리적 기복을 일삼았다. 그렇지 않아도 기복습성이 강한 한국인, 특히 都鄙를 막론하고 부녀자들은 온갖 供物을 다 바쳐 기복에 열중하는 폐습이 일반화하였다. 승려들 중에는 본래의 대승불교 교법에 따라 입산 수도하는 學僧도 더러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승려는 신도와 함께 기복만을 일삼았고, 기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무속까지 수용함으로써 불교와 샤머니즘의 혼합이 성행하였다. 이 점이 한국불교의 특이한 것으로서 지적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한국불교 사찰에는 본당 옆에 복두칠성을 향해 소

원성취를 비는 〈七星堂〉이 있다. 이것은 고대의 천신을 숭배하던 경천사상이 불교에 도입된 것이다. 또 본당내부 특히 암자에서 흔히 호랑이와 백발 노옹이 평화롭게 앉아 있는 화상을 볼 수 있다. 한국인은 지금도 호랑이를 靈物, 山神靈이라하여 그 그림을 곧잘 집안에 걸어 둔다. 이것은 〈密林의王者〉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위하던 민간신앙과 샤마니즘이 합쳐진 자연숭배사상의 불교화현상이다.

그러니까 한국불교는 샤마니즘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합류하여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불교와 샤마니즘에 의해 형성된 한국인의 생활감정은 二分法에 의해 선과 악을 양단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그리고 악을 징계하거나 사면할 권능을 갖는 유일신,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시 불완전한 존재여서 악한 존재일 수도 있고, 선한 존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타의 大慈大悲에 의존해서 죄를 사면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그 수단으로서 불타에게도 물질울 제공해야 공덕이 있게 된다는 생각에서, 샤마니즘이나 마찬가지로 현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복을 받겠다는 공리주의가 불교 공양행위의 근본사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상은 서양의 幸福論 (Eudämonismus)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영국에서 발생하여 독일의 通俗哲學 (Populärphilosophie)에 영향을 끼친 행복론은 "인간이 현세에서 이룩한 업적에 따라 신의 은총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현실적 행동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샤마니즘과 불교는 제3자의 중개로 잡귀나 불타의 施惠를 얻으려 하였던 것이다. 물론 당사자가 직접 기복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행복의 대가에 관해서 잡귀와 정신적 계약을 맺는 경우는 없고, 다만 물질제공 뿐이다. 이 때 供物의 物量이 결정적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불행과 죄절을 잡귀의 탓으로, 또는 전생의 죄 탓으로, 즉 숙명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한국인은 운명을 스스로 타개하려는 노력보다는 잡귀의 힘이나 불타의 자비에 의존하여 안이하게 행운을 매수하려는 경향이 농후하였기 때문에 宗教 萬能主義가 습성화하였다.

Ⅲ. 自然觀

고려시대에 성행한 風水說은 종교만능사상을 조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

였으며, 그로 인하여 형성되어 고질화된 자연관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의식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인에게 모든 자연은 이용, 탐구,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외경과 신앙의 대상이었다. 그 한 예로서 다음 구절에서 한국인의 자연에 대한 감정표시를 읽어 볼 수 있다.

더듬어 들어가는 산은 신선이 살 법한 극히 준엄한 절경뿐이었으며, 자연과 인간이 동감이 된다기 보다도, 그 거창한 자연의 품안에 쌓여 들어가 비로소 자신의 작고 힘없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다고 하는, 그것은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 위대한 자연의 위엄을 보여주는 광경이더라. 바위도 나무도 하늘도 순정한 흰색의 빛을 보여주고, 그 하나하나가 거대한 힘의 조화에 의해서 인간의 상상을 압도해주고 있더라. 종교적인 경건한 감명이 절로 나서 위대한 자연의 시위(示威)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과 노예를 맹세하고 싶을정도였으니...¹⁰⁾

한국인의 자연에 대한 깊은 감동과 공경의 태도는 한국화속에 묘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화의 전형적인 주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산수 풍경이다. 수려한 산, 기암, 고목, 그 사이로 흐르는 계곡, 폭포수, 자연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안개 등이 있는 그대로 묘사되어 있고, 그 속에 인간은 미소한 존재로 표출되어 있음을 본다. 같은 동양화라 해도 중국화에서는 인간의 위치가 비교적 크게 묘사되어 있다. 한국화에서는 인간이 지극히 작은 자연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서양의 주제는 주로 인물이다. 회화를 통해서 느끼는 한국사상의 특징은 샤머니즘과 불교의 영향을 받아 自然中心的이고, 자연과 나아가 우주와 화합 조화를 찾으려는 것이라 하겠다. 그에 비하여 서양적 사상은 人間中心的이어서 자연이나 우주를 인간의 지혜와 의지로 탐구 지배하여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파우스트적 탐구욕은 바로 서양적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다.

10) 趙雄傳 全集 III권 296면, 金泰吉 著: 『小説文學에 나타난 韓國人的 가치觀』, 文
藝社 1977, 17면에서 재인용.

자연에 대한 외경감 중에서도 산과 산맥을 신성시하는 관념은 고대 지신숭배사상과 다음에 거론할 조상숭배사상과 합쳐져 가장 강력하게 한국인의 의식 속에 남아 있어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즉 한국인은 산맥을 인간의 血脈과 같다고 생각하여 왔기 때문에 산맥에 상처를 입히는 일은 금기되어 왔다. 개발을 위하여 산맥에 굴을 뚫는다든가, 절단한다는 것은 곧 혈맥을 끊어 산정을 사멸시켜 기복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하여 산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해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산정은 독일낭만파가 상념한 精靈崇拜(Animismus)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또한 서양에서는 자연찬미가 자연의 신비를 해명하려는 분석적인 것인데 반하여 한국인의 경우는 자연의 표피적인 관찰과 자연현상에 몰입도취하는 것에 불과하였던 고로 고작해야 산사를 세워 자연의 품안에서 명상하거나, 조상을 매장하여 성역화하고 地靈의 덕분에 복을 받으려는 생각뿐이었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한다.

아무튼 불교와 자연숭배사상은 인간의 현세적 기복을 일삼는 신앙이었고, 그런 점에서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었다. 또한 그 사상들이 인간성 형성에 끼친 영향도 위에서 언급한 샤머니즘의 경우와 유사하다. 즉 샤머니즘을 신봉하는 무식한 대중이나, 유식한 승려, 상류층 불교신도, 일반신도를 막론하고 모두가 의타심이 너무 강하였고 여의치 않은 결과는 모두 숙명적인 것으로 돌리는 습성이 고질화되어 현대문명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하고 있으니, 우리는 아직도 계몽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IV. 儒敎

유교가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들어 온 것은 B.C. 400 - 200년 경부터라는 추측도 있으나, 실제로 유교가 한국에 수용되기는 3국으로 분할되었던 시대에 설립된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유교經典을 중요 교과목으로 선정할 때부터이다 (고구려 372년, 백제 375년). 그 후 고려조는 통일국가로서의 행정체제를 완비하였고, 또한 학제도 완비하여 958년에 처음으로 유교경전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중국식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급학교에서 유교교육이 성행하여 유교는 학문으로서 사회상위층에 수용되었고, 불교와 유교가 조화를 이루면서 발달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고려말에는 불교가 타락하였던 고로, 1300년경에 朱子學(新儒教)이 도입됨에 따라 주자학 즉 道學은 타락한 불교를 비판함으로써 불교는 배척당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다음 왕조인 조선조에는 신유교가 개인 및 사회윤리의 기반이 되었고, 국교와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봉건사회를 지배하는 政治倫理가 되었다. 그리하여 유교는 정치와 敎學에서 뿐만 아니라 國民의 日常生活에서까지 그 原理로 支配的 役割을 하였다.

조선조는 정책적으로 국민의 숭배대상을 잡귀나 불타대신 왕과 가장등 현존하는 힘으로 代置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朱子의 家禮에 따른 三綱五倫을 국민의 大義名分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東洋三國에 공통적인 윤리강령이기도 하다. 삼강은 군신, 부자, 부부 간에 지켜야 할 도리이다. 즉 군주에 대한 신하의 <忠>, 부모에 대한 자식의 <孝>, 남편에 대한 아내의 <節概와 順從>이다. 이 윤리원리는 垂直的, 일방적이어서, 군주가 신하에 대한, 부모가 자식에 대한, 남편이 아내에 대한 태도 강령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삼강이외에 연장자에 대한 연하자의 <존경>의 윤리, 친구간에 <신의>의 二倫을 합쳐 오륜이라 한다.¹¹⁾ 독일에서도 다른 기독교국가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3대 기독교 윤리 — <사랑>, <믿음>, <희망> (Drei christliche Tugenden: Liebe, Glaube, Hoffnung) — 가 있고, 그 밖에 4대 근본윤리 — <중용>, <정의>, <친절>, <용기> (Vier Kardinal-Tugenden: Maße, Gerechtigkeit, Freundlichkeit, Tapferkeit) — 가 있다. 한국과 독일의 윤리강령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양자간에 대조적인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 종속적인 것과 대등한 것, 타율적인 것과 자율적인 것을 들 수 있다.

유교윤리는 여성에 대하여 매우 가혹하였다. 소위 남편이 아내를 내보낼(이혼할) 수 있는 여자의 7가지 죄악(七去之惡: 無男兒, 不孝, 不貞, 嫉妬, 惡疾, 口舌(多言), 盜竊)¹²⁾ 이라는 윤리규정은 여성을 노예화하였고 남존여비사상이 오늘날까지 뿌리깊게 지속한 원인이 되었다. 한국적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기사도(Ritterliche Tugenden) 중의 미덕이라 할 높은

11) 李民樹 譯: 『五倫行實圖』, 乙酉文庫 211, 4-5면.

12) 朴秉濂 著: 『韓國의 傳統社會와 法』,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8, 181-183면.

사랑 (Hohe Minne)같은 것은 상상할 수도 없거니와 수녀도 — 〈순종〉, 〈인내〉, 〈겸손〉 (Klostertugenden: Gehorsamkeit, Geduld und Demut) — 보
 다도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삼강 오륜, 여성윤리강령에 따라 인간의
 행동은 극도로 제한되었고, 〈유일한 행동의 자율성은 오로지 윗사람에 절대
 복종하는 것 뿐이었다〉. 조선조는 이와같은 윤리의 독재에 의해서 가정의
 안정, 사회의 질서, 왕통의 지속이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유교는 조상숭배를 최고의 윤리로 강조하였고 그에 따른 예절을 일상생
 활의 근본원리로 삼았다. 생존한 조상을 존경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망한
 조상, 始祖이래의 선조를 경배하기 위하여 제사지내는 가례가 발달하였고,
 역대선조의 묘지보존관리를 중시하였다. 사망한 4대조, 또는 5대조까지는
 조상사망일 밤중에 집에서, 그 이상의 윗대조상은 일년에 한번 합동으로
 추수가 끝난 후 묘지에서 제사를 지낸다. 집안 제사는 가장이, 산제사는 그
 가문의 종손 또는 묘지근방에 거주하는 자손들이 집행한다. 이 때 조상을
 제단위에 〈神位〉로 받들어 모시고, 많은 음식을 만들어 의식에 따라 제사
 를 지내는데 음식이 많으면 가족 특히 주부의 효성심이 깊다는 평가를 받
 고, 조상도 殞感하여 자손에게 더욱 많은 福을 내린다고 생각해왔다. 묘지
 도 거대하게 만들수록 타인 앞에 체면도 서고, 조상에 효를 많이 하였으니
 그만큼 복을 많이 받게 된다고 생각하여 묘를 巨創하게 만드는 폐단이 생
 졌다. 이와같은 관습이 한국인의 自己誇示慾을 조장하여 왔다. 특히 사회
 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위 〈明堂〉관념이다. 즉 산맥의 좋은 자리에 조
 상의 묘를 쓰면 자손이 번성한다 하여 〈명당자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근래 신흥부자들이 마구 산을 사는 풍조가 생겨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조상 및 묘지 관념은 위에서 언급한 한국인의 자연관에 기인
 한 것이다. 즉 신성한 자연 중에서도 風水說에 따라 좋은 자리에 조상의 묘
 를 쓰면 자연의 정기가 후손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상이다. 결국 제사, 묘를
 통해서 조상숭배사상을 표시하는 것은 샤머니즘, 불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복행위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일이 잘 안되면 〈조상의
 탓〉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한국인의 의타심을 잘 표현하고 있다. 즉
 조상이 명당에 자리하지 못하여 자손에게 복을 줄 수 없다는 개탄의 의미
 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상에 대한 효성심이 모자라서 벌을 받았다는 조
 상신에 대한 두려움이 섞인 말이기도 하다. 한국인은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쓰지만 뒷사람에 대해서는 <존경>뿐이다. 아롱든 조상승배, 제사, 묘지관은 지금까지 가장 깊이 한국인의 의식 속에 계승되어 오고 있는 유교적 사상이다.

다음에 유교와 학문의 관계를 고찰해본다. 유교 도덕율은 일상생활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학문연구도 제한하였다. 신유교학자(성리학자)들은 "유교의 교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자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둑과 같다. (斯文亂賊)"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교리에 어긋난 행동>이란 위에서 언급한 도덕률과 예절에 어긋난 행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학고전의 자의적 해석을 뜻한다. 즉 주자학의 범례에 따르지 않는 해석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논어를 비롯한 고전의 주해를 단일화하여 한가지 범례만 통용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고 들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학문의 자유, 사고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봉쇄하고 말았다. — 따라서 아무리 좋은 사상이나 학문을 어느 학자가 개척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집권계급의 한사람이 아니면, 즉 규범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었다. 만약 이 규정을 거역하고 자의적인 학리를 주장하는 자는 생명의 위협을 면치 못하였다. 이와같은 학문의 제한은 19세기에 대두한 <斥邪衛正論>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외래문화, 물질문명의 유입에 대항하여 유교의 정통성을 수호하게 위한 주장이다. 여기서 <邪>라 함은 주로 외래문화를 뜻하지만 <正>의 개념은 도덕적, 법적인 것이 아니라 인습과 전통을 뜻한다. 즉 공사간에 종래의 관습은 고수 보존되어야 한다는 수구파의 주장이다. 따라서 어떤 개혁이나 新思潮의 대두, 또는 관행의 변형같은 것은 <邪>라 하여 금지되었다. 전체주의 왕권시대에는 모든 규정은 엄수되어야 했으며 새로운 발상은 위험시되었다. 더더군다나 왕실, 왕통에 대한 비평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사소한 혐의만 사도 본인은 물론 한 가족 또는 3족(친가, 처가, 외가)이나 그이상의 친족이 전멸당하는 참화를 면치 못했다. 이 철칙에 의하여 조선조는 5백년이나 장수할 수 있었고, 그동안에 文化的 單一性이 지속되어 왔다. 사찰이나 회화의 외형이 근 5백년 동안 별로 변하지 않고 전승되어 온 것을 보아도 그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서양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정치, 문화의 단계적 발달을 감안할 때 유교문화의 수구성은 실로 완강한 것이었다.

상술한 한국역사의 배경에서 한국적 법의 개념이 생활화되었다고 본다. 法은 한자의 어원풀이에 따르면 본래 <刑>¹³⁾ 을 뜻한다고 한다. 한편 서양의 법(Das Recht)은 정의(Gerechtigkeit)와 권리(Berechtigung od. Befugnis)를 뜻한다. 그러나 한자 <法>의 한국적 해석은 <水 + 去>, 즉 흘러가는 물과 같다는 뜻이다. 즉 時流와 같음을 뜻한다. 사물은 수류에 역행할 수 없듯이 인간도 시류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된다는 관념이 오랜 탄압과 제한 속에서 살아온 한국인의 의식 속에 고정되어 왔다. 따라서 처세의 묘는 모름지기 시속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에 대한 한국식 경고적 해석이다.¹⁴⁾

V. 學問의 功利主義

고려조, 조선조시대에 관제는 문관과 무관 그리고 기능직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중앙과 지방의 정치 문화 행정을 문관이 전담하였다. 무관은 차별대우를 받아 변경과 도성의 수비나 담당할 뿐이었고, 기능직은 하위직에 머물렀다. 따라서 양반자제는 고관이 되기 위하여 문관을 선호하였다. 문예중심의 유학을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한 문관이 득세하자 시대풍조는 文弱하여 외세침입 앞에 국가는 무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구한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도덕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도덕율이 얼마나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하였던가를 상상할 수 있다. 이 점이 한국의 봉건왕조와 세계의 다른 봉건국가들과 크게 다른 점이다.

유생들은 오로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하여 면학하는 것이고 학문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학문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었다. 과거에 합격한다는 것은 바로 가문을 빛내고 조상에 효도하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면학태도는 어느정도의 학문으로 당장에 실리를 얻으려는 소망에 좌우된다. 즉 위에서 말한 종교적 기복행위가 공리주의에서였던 것과 같다. 그런 까닭에 학문이 심화하지 않았고, 표피적이고 형식적이

13) 朴秉濂 著: 『韓國의 傳統社會와 法』, 8-9면. <法>은 「법」 漚의 略字라는 풀이가 있다.

14) 이와 같은 해석은 속설적임을 밝혀둔다.

었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의적이며 독창적 연구가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과거에 합격하면 학문은 끝나고, 고작해야 배운 것을 밀 천삼아 서당선생님이 되는 정도였다. 그런 식으로 매사를 근시안적이고 졸속하게 처리하는 태도가 한국인의 단점이라 하겠다. <백년대계로 거대한 건물을 지어 천년의 역사를 빛내려는 거시적인 안목>이 아니라, 작은 집이 나마 빨리 지어서 이용하자는 태도이다. 발전성없는 순환에 불과하다. 실용적인 학문으로는 고관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과학적 탐구는 발달하지 않았다. 학문욕에서, 인식욕에서 우주의 신비를 구명하려는 학문은 조성되지 않았고, 아나크레온파(Anakreontik)와 같은 시풍이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다.

그 밖에 진취적 행동을 위촉시킨 것은 효행의 강요이다. 그 이유는 "부모가 계시거든 멀리 여행하지 말라, 여행할 때에는 반드시 행방 소재를 분명히 하라"¹⁵⁾는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자식은 항상 부모 곁에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행동의 제약때문이다. 현상에서 벗어나 먼 곳, 미지의 세계에 대한 憧憬心같은 것은 <邪>가 된다. 그런 행동은 부모를 저버리고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근세(이조시대) 소설에 나타난 이상적 남성상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다.¹⁶⁾

1. 풍채가 俊秀한 남자(조상 덕분으로 타고난 미남).
2. 문장재주가 탁월한 남자(이것도 조상덕분으로 선천적 천재형).
3. 과거에 합격하여 고관이 될 남자.
4. 효자.
5. 예의 바른 남자.

이에 반하여 노력해서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형은 박복한 상이라 하여 천시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통사상은 한국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인간

15) 이원섭 역주: 『명심보감』, 學園社 1989, 40면: 父母在不遠遊, 遊必有方.

16) 金泰吉 著: 『小説文學에 나타난 한국인의 價値觀』, 文音社 1977, 48 - 53면.

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면도 많았다. 의타심이 강하고, 일이 잘 안 되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것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회피 근성과 노력기피 성벽을 조장했다. 특히 유교, 그 중에서도 주자학은 조선시대의 정치적 독재의 원리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 학문, 사회, 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까지도 규정하는 도덕의 독재였다.¹⁷⁾ 때문에 관념적이고 고식적인 주자학 이외의 학문은 발달하지 못하였고, 그 규범 안에서 전전공공하면서 살아왔으니, 인간의 한계극복을 지향하는 <파우스트>적 욕망은 대두할 수 없었다. 서양에서는 파우스트전설이 출현한 16세기를 전후해서 우주의 신비에 대한 인식의욕,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의욕이 왕성하게 대두하였다. 한편 東洋三國에서는 예외없이 쇄국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이 시기 (조선조 시대)에 주자학자들은 공론을 일삼았고, 고루한 수구성을 탈피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운명에 대한 강경한自己崇拜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는 외세의 강요에 의하여 개항이 불가피하여졌을 때까지 외부세계는 국민적 상념밖의 미지의 세계로 머물러 있었다. 그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진취적 기상이 국민적 정신으로 배양될 수 없었음은 당연하다. 그리고 전통적 인습은 현금에도 계승되고 있다.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서 옛 풍속에 따라 여전히 돼지머리를 놓고 지신에 기복하는 건물주, 현대과학을 공부하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위하여 불공하는 어머니들,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기독교인들, 거대한 조상묘를 만드는 부자들, 남편은 아내를 대칭(du)으로 부르고, 아내는 남편을 존칭(Sie)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한국적 전통사상이 변함없이 살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나는 위에서 의도적으로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부정적 시각에서만 고찰하였는데 끝으로 <현대판 파우스트 전설> 성립의 가능성 여부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과거시대에는 한국인의 파우스트적 노력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의 잠재력은 새로운 과학기술(Technologie)에 의해서 그 힘을

17) 金九 著: 『白凡逸志』, 瑞文文庫 085, 321 - 322면: “수백년동안 이조 조선에 행하여 온 계급독재는 유교, 그중에서도 주자학파의 철학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우리나라가 망하고 민력이 쇠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실로 여기 있었다...”

발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미 한국판 파우스트 전설이 성립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은 과학 기술에 의해서 놀라운 자기확장을 성취하고 있으며, 종래의 관념으로는 예측할 수 없을만큼 자기능력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 우리 한국인과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 현상에 동참하고 있다. 과학기술에 의해서 인간은 동화의 세계를 실현하고 있다. 달의 동요는 이미 그 아름다운 상념을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현대판 마귀(Teufel)라는 哲學的 解釋은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21세기의 파우스트는 철학자도, 음악가도 아닌 과학기술의 전문가(Technologe)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테크놀로지>의 마력을 이용하여 무한한 인식욕을 충족시켜 기적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테크놀로지>의 개발과 사용은 오로지 <아름다운 정신의 이상(Das Ideal der schönen Seele)> 구현을 위해서만 이라야 한다. 이러한 고전적 이념을 간직하고 계도하는 것이 파우스트 독자의 債務이며, 이점에 파우스트의 현대적 의미가 있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1. Historia von D. Johann Fausten, Reclam 1515.
2. 윤이훈 外 著: 『한국인의 종교』, 정음사 1989.
3. 金九 著: 『白凡逸志』, 瑞文文庫 085, 1987.
4. 朴秉濂 著: 『韓國의 傳統社會와 法』,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8.
5. 金泰吉 著: 『小說文學에 나타난 韓國人의 價値觀』, 文音社 1977.
6. 韓甲振 著: 『알기쉬운 佛敎社』, 韓振出版社 1986.
7. 이원섭 역주: 『명심보감』, 學園社 1989.
8. Goethe: Faust, Hamburger Ausgabe Bd.3.